

KIMA WEEK 2014의 돛을 펴고 출발하라!

흔히 사람의 인생은 끝없는 항해에 비유된다고 하죠.
KIMA WEEK 2014도 국내 최고 해양도시 부산에서
해양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끝없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양문화산업의 저변을 마련할 KIMA WEEK 2014!
베일을 벗고 광활한 해양레저의 바다로 돛을 펼칩니다!

KIMA 2014
WEEK

KIMA WEEK 2014의 화려한 서막

- 개막식(Grand Opening)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양레저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작게는 해양레포츠 관련 용품의 수출입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해양레저문화와 조합된 마리나 건설까지 그 시장규모 광범위하여 발전 가능성이 넓기 때문이다. KIMA WEEK 2014에서는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양레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KIMA WEEK 2014의 성대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Grand Opening)에는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및 참관인 등 약 5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이다. 부산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식전 공연,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공식 오찬 순으로 KIMA WEEK 2014의 만전을 기원하는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은 이탈리아 해양산업협회 (UCINA) 사무총장인 Lorenzo Pollisardo가 대표로 나서게 되어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식은 부산 MBC 채널에서 총 60분간 생방송되어 개막식의 생생한 현장을 TV로 볼 수 있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해외연사, 중앙인사, 지역인사,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컨퍼런스는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동북아 주요 국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과제와 요트 산업 시장 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부산 MBC 채널에서 60분간 녹화 방송을 진행한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7일간의 해양레저축제, KIMA WEEK 2014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해양레저문화·산업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 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BOAT SHOW NOW

KIMA WEEK 2014의 화려한 서막

- 개막식(Grand Opening)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양레저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작게는 해양레포츠 관련 용품의 수출입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해양레저문화와 조합된 마리나 건설까지 그 시장규모 광범위하여 발전 가능성이 넓기 때문이다. KIMA WEEK 2014에서는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양레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KIMA WEEK 2014의 성대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Grand Opening)에는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및 참관인 등 약 5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이다.

부산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식전 공연,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공식 오찬 순으로 KIMA WEEK 2014의 만전을 기원하는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은 이탈리아 해양산업협회 (UCINA) 사무총장인 Lorenzo Pollisardo가 대표로 나서게 되어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식은 부산 MBC 채널에서 총 60분간 생방송되어 개막식의 생생한 현장을 TV로 볼 수 있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해외연사, 중앙인사, 지역인사,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컨퍼런스는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이라는 주제 아래, 동북아 주요 국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과제와 요트 산업 시장 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부산 MBC 채널에서 60분간 녹화 방송을 진행한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7일간의 해양레저축제, KIMA WEEK 2014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해양레저문화·산업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 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동남권 해양레저지역-바다의 변신은 무죄, 다대포

[부산> 다대포 편]

큰 포구가 많은 바다라는 뜻을 지닌 다대포(多大浦)는 예부터 왜구의 출몰이 잦아 국방의 중요한 요새지였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길이 900m의 길고 넓은 백사장을 가지고 있으며 모래가 고와 서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대포의 바다는 수심이 낮으며 수온이 따듯한데, 특히 밀물 때와 썰물 때의 모습이 많이 차이 나서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다. 만조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 여느 바다와 같은 모습이지만, 간조 때가 되면 1km 이상 물이 빠져나가 백사장과 갯벌이 넓게 펼쳐진다.

2km 이상 들어가도 물 깊이가 고작 허리 정도가 될 만큼 안정되고 낮은 수심,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카이트보딩, 윈드서핑, 워터슬레이, 카약, 덩기요트, 레프팅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카이트보딩

- 카이트보딩은 바람을 이용해서 대형 연을 이끄는 방식으로 경기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대포는 바람이 많아 윈드서핑과 함께 카이트보딩을 하기에 국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동호인과 선수들이 찾는 장소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이트보딩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매년 8월 '정운장군배 전국 카이트보딩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 카이트보딩 협회에서 10여 대의 카이트보딩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워터슬레이

- 워터슬레이는 무동력 보트를 수상 오토바이에 연결하여 그 동력으로 수면 위를 달리는 신종 레저 스포츠로,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우주볼과 같은 종류를 통틀어 말한다. 다대포를 찾는 레저 체험객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한해 3,000여 명이 참여한다. 한 번에 여러 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단체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다.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워터슬레이 종목들을 만날 수 있다.

■ Check Point

☞ 낙조분수

-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낙조분수는 '음악분수'라 불린다. 최대지름 60m, 둘레 180m, 최고 물 높이가 55m이다. 평소에는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생태 체험 학습장

- 다대포 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때가 되면 바다가 갯벌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종류의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다.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한 생태 체험 학습장에서는 체험에 필요한 장화와 물통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주말에는 단체 및 예약 신청자들에게 현장 설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축제!

- KIMA WEEK 2014 전체일정 안내

드디어 9월 29일!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KIMA WEEK 2014'가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 2014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라는 주제 아래, 해양, 문화, 산업이 융합한 해양인프라를 육성하여 해양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국제 규모의 해양레저축제이다.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개막식 (Grand Opening)과 국제컨퍼런스,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어린이 요트대회, 부산 국제드래곤보트대회 등의 해양스포츠대회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프로그램인 Marine BIFF Zone,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KIMA WEEK 2014에서 단연 주목 받을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아시아 대표 보트쇼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 즐기는 레저 활동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개막식, 국제컨퍼런스, 부산국제산업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대회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일반인이 모두 참관 및 참여할 수 있다. KIMA WEEK 2014와 함께 7일간의 해양레저축제를 맘껏 즐겨라!

Grand Opening

9월 30일(화) 10:30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9월 30일(화) 13:30~16:00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부산국제보트산업전

10월 2일(목)~5일(일) | 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광안리달빛수영대회 | 10월 4일(토) 18:00~22:00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어린이 요트대회 | 10월 4일(토)~5일(일) |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 10월 6일(월)~12(일) | 수영강 APEC나루공원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9월 29일(월)~10월 5일(일)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 Marine BIFF Zone

10월 2일(목)~11일(토) | The Bay 101 marina(해운대)

KIMA WEEK 2014는 행사를 즐기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최근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면 komalnet@naver.com로 수신을 원하는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뉴스레터'를 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거나
수신 메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komalnet@naver.com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KIMA WEEK 2014 사무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TEL : 82,51,760,1143 FAX : 82,51,760,1134

Copyright (c) 2014 KIMA WEEK 2013. All Rights Reserved